

수학 영재의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이 미 순 (대구대학교 교수)*
정 자 영 (근명중학교 교사)**

《 요 약 》

본 연구는 영재의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 재원 중인 중등 수학 영재와 중등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성역할 검사 도구(정진경, 1990)와 진로태도 성숙척도(김재호, 2006)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성 요인과 여성성 요인의 중앙치를 준거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및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일반 학생의 경우 미분화 성역할 정체감 유형, 영재의 경우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한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 학생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각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요인(확신성, 준비성, 목적성, 독립성, 결정성)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그 패턴도 유사하였다. 반면에 영재는 일반 학생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 정도가 높았으며,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태도 성숙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영재가 다른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영재보다 진로태도 하위 요인에서 성숙 정도가 높았다. 남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영재는 진로 확신성을 제외하고는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영재보다 진로 준비성과 진로 독립성 요인에서 성숙 정도가 낮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특징과 반응을 근거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진로지도 및 상담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영재, 성역할 정체성, 진로태도 성숙, 이공계 기피

* 제1저자

** 교신저자, cjy6597@hanmail.net

I. 서론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 및 산업 전문화로 인한 사회변화 속에서, 청소년 시기는 향후 진로를 준비하고 탐색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변화에 부응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초하여 진로지도를 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진로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준비를 청소년 시기에 시작하지만, 진로는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의 태도, 가치관, 동기, 흥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이기학, 1997). 진로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이고 올바르다는 의미는 그 만큼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로의식이 성숙하여 진로 방향을 잘 설정하며, 진로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판단하여 다음 단계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지용근, 2004; Herr, Cramer, & Niles, 2004).

진로태도(career attitude)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진로태도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발전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 속성의 영향을 받는다(이기학, 1997). 그러므로 진로 탐색을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상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진로지도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영재 청소년들은 영재성으로 인한 개인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진로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영재는 타고난 적성, 흥미 및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신의 다재다능한 재능과 흥미에 대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실존적 딜레마(Colangelo & Zaffrann, 1979; Delisle & Squires, 1989; Kerr, 1981, 1986, 1991; Kerr & Ghrist-Priebe, 1988), 잘못을 할 것 같은 두려움(Buescher, 1991; Silverman, 2000), 자신의 이상 및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Delisle, 1982; Kerr, 1990),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슬픔 및 신체 및 사회·정서영역과 인지영역에서의 비동시적인 발달(asynchronous development)로 인해(Buescher, 1985; Kerr, 1981; Manaster & Powell, 1983),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상의 영재 청소년들은 영재성으로 인한 진로선택의 혼란 및 갈등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합리적인 진로에 대한 태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 영재의 진로에 대한 태도를 남자 청소년 영재의 양상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 영재가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남자 청소년 영재보다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Kerr, 1997; Kerr & Maresh, 1994; Klein & Zehms, 1996; Silverman, 1995). 즉 “영재” 그리고 “여자”라는 이중 정체성(dual-identity)을 형성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 영재들은 진로 관련 갈등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 여자 영재들은 남자 영재들보다 우수한 혹은 유사한 정도의 인지 및 행동 특성을 보이며, 모든 진로 영역에서도 높은 포부수준을 보인다(유성경 · 이항심 · 황매향, 2007; 유정이 · 황매향 · 김지현, 2002; Callahan & Reis, 1996; Hollinger & Fleming, 1992; Kline & Short, 1991; Silverman, 2000).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자 영재들은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고정 관념이 작용하는 특정 교과(수학, 과학 등)에서 성취 경험과 자신감이 낮아지며(Reis, 1991), 교육 및 직업적 포부수준이 줄어들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지배하는 직업에 대해서만 높은 포부수준을 보인다(황매향 · 김지현 · 유정이, 2003; Kerr, 1997). 이와 같은 여자 청소년 영재의 특징은 남자 청소년 영재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과학, 수학 영재의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부진의 현상을, 장기적으로는 과학, 수학 관련 진로 및 직업 결정의 부재 현상으로 연계되고 있는 실정이다(정경아 · 최윤정 · 윤초희 · 이미순, 2006; Crombie, Bouffard-Bouchard, & Schneider, 1992; Kelly & Cobb, 1991; Reis & Callahan, 1989; Terwilliger & Titus, 1995).

이에 진로태도(career attitude) 형성에 있어 생물학적 성차보다는 생물학적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즉 사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역할 정체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박은옥 · 박영숙, 2000; 송은경, 1994; 유계식 · 이재창, 1997; 조아미, 2002; Burnett, Anderson, & Heppner, 1995; Karniol, Gabay, Ochion, & Harari, 1998; Kirchmeyer & Bullin, 1997; Lundeberg, Fox, Brown, & Elbedour, 2000; Matsui, 1994).

성역할 정체감(gender-role identity)이란 사회가 성에 따라 적절하다고 기대하는 행동양식, 태도 혹은 흥미를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된다(박완성, 2002; 임희경 · 이기학, 2006; 장휘숙, 1999; 최임순, 2004). 과거에는 성역할 정체감에 단일차원 접근법을 적용하여 단일 차원의 양 끝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위치시켜 남성은 주로 남성성을 여성은 여성성을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독립 차원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간주하게 되면서, 한 개인 내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공존할 수도 그리고 남성성 혹은 여성성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임희경 · 이기학, 2006; 정자영, 2009; 최임순, 2004; Bem, 1974; Gianakos & Subich, 1988; Kaplan & Sedney, 1980). 그러므로 성역할 정체감은 생물학적 성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형성 · 발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발달단계와 시대, 문화에 따라 성역할의 개념은 물론 성역할 정체감도 변화하게 된다(김영희, 1990; 오윤자, 2003; 최임숙, 2004). 예를 들어, 성역할 정체감 발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시기에는 ‘미분화’ 정체감의 비율이 높다가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서, ‘양성성,’ ‘남성성’ 및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된다(오윤자, 2003; 조아미, 2002). 즉 남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여성성’ 정체감이 증가한다. 반면에 여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남성성’ 정체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개인은 발달단계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달라지지만, 점차 사회에서 규정한 성역할 특성과 역할 규정에 사회화 되면서, 남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시기,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김영희, 1990).

한편 개인은 진로에서 어떤 성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에 부합하는 진로에 흥미를 보이고 선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을 가진 여학생은 ‘남성 다수’ 직업(여자에게 비전통적이라 생각되는 직업)을 선호한 반면, ‘여성성’을 가진 여학생은 ‘여성 다수’ 직업(여성에게 일반적 혹은 전통적이라 생각되는 직업)에 흥미를 보였다(Gianakos & Subich, 1988; Hackett, 1985; Harren, 1979; Wolfe & Betz, 1981). 또한 여성의 진로 지향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Bem, 1975; Farmer, 1985; Yanico, Hardin, & McLaughlin, 1978). 즉 진로 지향적 여성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 많이 가진 양성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된 바 있다. 여자 청소년 영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Kerr & Maresh, 1994; Klein & Zehms, 1996; Torrance, 1980)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영재들의 성역할 정체감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 지향적이며, 진로에 대한 성고정 관념 수준이 낮았다. 다시 말해서, 성역할 정체감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여자 청소년 영재들은 능력이 우수한 것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역할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진로 선택 및 결정의 어려움에 잘 대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재의 타고난 잠재력 발현을 도모하고, 영재로 하여금 사회 및 인류 발전을 위해 성숙한 진로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 과업, 즉 자아 정체감의 확립을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생물학적 성(남자와 여자)으로 구분하는 성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진로에 대한 태도,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정체감을 조망함으로써, 바람직한 진로지도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영재성과 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성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에 재원 중인 수학 영재($n = 160$)와 일반 학생($n = 198$)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재교육원에 재원 중인 수학 영재는 다단계 판별 절차, 즉 학교장의 추천, 영재성 판별검사, 학문 적성검사, 탐구능력 평가 및 심층 면접의 다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생들이다. 영재학급에 재원 중인 수학 영재는 영재교육원 대상자 판별과 마찬가지로 다단계 판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영재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다. 이에 비해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과 동일지역에서 3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일반 학생을 표집하였다. 특히 일반 학생 중에 잠재적 영재로 판단되는 학생을 배제하기 위해 학년 석차 상위 5% 이내이거나 수학과 과학에서 학업성취가 뛰어난 학생을 제외하여 일반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응답내용을 보았을 때, 무성의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n = 28$), 전체 330명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을 영재성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영재가 153명(46.4%) 그리고 일반 학생이 177명(53.6%)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91명(57.9%) 그리고 여자가 139명(42.1%)이었다. 한편 일반 학생의 남, 녀의 표집분포보다 수학 영재의 남, 녀의 표집분포가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수학 영재로 판별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

〈표 II-1〉 수학 영재와 일반 학생의 분포

구분	영재		일반 학생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중등 1학년	45	29	32	38	144
중등 2학년	58	21	56	51	186
전체	103	50	88	89	330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수학 영재의 성역할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Bem(1974)의 성역할 검사를 수정 및 보완한 정진경(1990)의 한국판 성역할 검사도구(Korean Sex Role Inventory, KSPI)

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성역할 검사 도구는 성역할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성고정 관념을 반영하는 남성성(20문항), 여성성(20문항), 그리고 중성성(20문항)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대변화에 따라 성고정 관념을 반영하는 성역할 성격 특성도 변화된다고 가정하고, 한국판 성역할 검사 도구 문항 중 남성성과 여성성의 각 20문항만을 사용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성역할 성격 특성을 측정한다고 지각한 문항에 대해서만 추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성 요인으로 “대범하다,” “강하다,” “박력이 있다” 등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성 요인으로 “친절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등의 문항이 도출되었다. 남성성 요인과 여성성 요인은 전체 변량의 54% 정도를 설명하며, 남성성 요인과 여성성 요인은 성역할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변량을 각각 43.9%와 10.0% 가량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남성성 요인(11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93이며 여성성 요인(11문항)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나, 중등 학생의 성역할 성격 특성을 측정한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영재성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도를 연구하고자 초등 고학년용 30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반응하는 진로태도 성숙 척도(김재호, 2006)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 보완한 문항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 대상의 진로태도 성숙도를 측정한다고 사료되는 문항에 대해서만 추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진로태도 성숙 척도의 하위 요인은 모두 5개 요인(확신성, 준비성, 목적성, 독립성과 결정성)의 24문항이다. ‘확신성’ 요인(5문항)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말하며, 전체 변량의 27.7%를 설명하였다. 전체 변량의 10.6% 정도를 설명하는 ‘준비성’ 요인(6문항)은 진로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준비, 관심 및 참여 정도를 말한다. ‘목적성’ 요인(6문항)은 진로 선택에 대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말하며, 전체 변량의 8.0% 정도를 설명하였다. 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독립성’ 요인은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로서, 전체 진로태도 성숙 변량의 6.6% 정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결정성’ 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고함 정도를 나타낸다. ‘결정성’ 요인은 진로태도 성숙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진로태도 성숙 요인의 신뢰도는 .79~.86으로 나타나 중등 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관련 특성을 측정한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3. 자료 분석

설문지 자료와 후속 자료 분석 시 SPSS 17.0 Window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수합한 자료들의 정확성과 무응답의 경향성을 조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 28부를 제외하고 전체 330명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영재성과 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치 반분법을 사용하여 4개 성역할 정체감 유형(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및 미분화된 유형)을 구분한 뒤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변량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영재성과 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

성역할 성격 특성을 그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활용하였다(Spence & Helmreich, 1979). 본 연구는 중앙치 반분법을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준거로 양성적 유형(androgyny type), 남성적 유형(masculinity type), 여성적 유형(femininity type)과 미분화적 유형(undifferentiated type)으로 분류하였다. 양성성 유형은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높은 유형이다. 남성성 유형은 남성성 점수는 높으나 여성성 점수가 낮은 유형이다. 이에 비해 남성성 점수는 낮으나 여성성 점수가 높은 경우는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은 유형은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남성성 점수의 중앙치는 4.73 그리고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는 4.59로 나타났다. 이에 남성성 및 여성성의 중앙치를 준거로 성역할 유형을 구분하였다.

성에 따라 영재와 일반 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II-1>). 전체적으로 연구 대상 학생들은 미분화(33.3%)와 양성성(32.1%)의 성정체감 유형을 많이 나타내지만, 이상의 경향성은 영재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반 학생은 미분화(55.4%)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많지만, 영재는 양성성(55.6%)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많았다.

남학생 중에서 영재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60.2%)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여성성(19.3%), 남성성(11.4%), 양성성(9.1%)의 순서를 보인 반면, 영재 남학생은 양성성 유형(61.2%)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여성성(17.5%)이 많이 차지하였고, 남성성(12.6%)과 미분화 유형(8.7%)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_3 = 73.53, p < .001$).

여학생 중에서 영재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를 보면, 일반 여학생의 경우, 일반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미분화 유형(50.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성(19.1%), 남

성성(15.7%), 양성성(14.6%)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세 유형간에 비교적 큰 차이는 없었다. 이에 비해, 영재 여학생은 양성성(44.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성성(36.0%), 여성성(14.0%), 미분화(6.0%) 순으로 나타났다($\chi^2_3 = 35.59, p < .001$). 특히 영재 여학생은 영재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양성성의 유형을 많이 보이는 하지만, 남성성 유형 또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1〉 영재성과 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분포

		성역할 정체감				χ^2
		미분화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남자	일반 학생	53(60.2%)	10(11.4%)	17(19.3%)	8(9.1%)	73.53 **
	영재	9(8.7%)	13(12.6%)	18(17.5%)	63(61.2%)	
	전체	62(32.5%)	23(12.0%)	35(18.3%)	71(37.2%)	
여자	일반 학생	45(50.6%)	14(15.7%)	17(19.1%)	13(14.6%)	35.59 **
	영재	3(6.0%)	18(36.0%)	7(14.0%)	22(44.0%)	
	전체	48(34.5%)	32(23.0%)	24(17.3%)	35(25.2%)	
전 체		110(33.3%)	55(16.7%)	59(17.9%)	106(32.1%)	

Note. ** $p < .001$.

2.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차이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진로에 대한 ‘확신성,’ ‘준비성,’ ‘목적성,’ ‘독립성’과 ‘결정성’에 대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어느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표 III-2>는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전반적으로 영재가 일반 학생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에서 평균이 높았다. 한편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영재 및 일반 학생 모두 진로에 대한 ‘확신성’ 차원에서 비교적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표 III-2〉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영역	영재			일반 학생			전 체		
		<i>M</i>	<i>SD</i>	<i>N</i>	<i>M</i>	<i>SD</i>	<i>N</i>	<i>M</i>	<i>SD</i>	<i>N</i>
양 성 성	확신성	3.90	.79	85	2.90	.83	21	3.70	.89	106
	준비성	4.31	.67		3.94	.79		4.23	.71	
	목적성	3.97	.74		3.23	1.25		3.83	.91	
	독립성	4.32	.63		4.13	.72		4.28	.65	
	결정성	4.17	.94		3.57	1.09		4.05	.99	
남 성 성	확신성	3.61	.60	31	2.75	.86	24	3.24	.84	55
	준비성	3.68	.38		4.03	.49		3.83	.46	
	목적성	3.58	.56		3.31	.91		3.46	.74	
	독립성	3.39	.93		4.01	.67		3.66	.88	
	결정성	3.40	.84		3.24	1.14		3.33	.98	
여 성 성	확신성	2.60	.77	25	2.66	1.03	34	2.63	.92	59
	준비성	4.31	.49		3.79	.67		4.01	.65	
	목적성	4.04	.87		3.17	.65		3.54	.86	
	독립성	4.09	.85		3.89	.80		3.98	.82	
	결정성	3.79	.89		3.12	1.00		3.40	1.00	
미 분 화	확신성	2.87	.71	12	2.54	.84	98	2.58	.83	110
	준비성	3.83	1.04		3.45	.72		3.49	.77	
	목적성	3.85	.66		3.28	.78		3.34	.78	
	독립성	4.58	.43		3.57	.92		3.68	.93	
	결정성	3.29	.99		2.93	1.05		2.97	1.05	
전 체	확신성	3.55	.90	153	2.63	.88	177	3.06	1.00	330
	준비성	4.14	.68		3.65	.73		3.88	.75	
	목적성	3.90	.74		3.26	.84		3.55	.86	
	독립성	4.11	.81		3.76	.87		3.92	.86	
	결정성	3.88	.97		3.08	1.07		3.45	1.10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Wilks의 기 준을 적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상 호작용이 조합된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Wilks' $\lambda = .83$, $F_{(15, 878)} = 4.12$, $p < .001$, 효과 크기 = .06). 즉,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상호작용이 진로태도 성숙의 변량을 6% 정도 설명하였다. 또한 조합된 평균 진로태도 성숙의 수준은 학생의 영재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Wilks' $\lambda = .87$, $F_{(5, 318)} = 9.77$, $p < .001$, 효과 크기 = .13), 학생 을 영재와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들의 진로태도 성숙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 리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Wilks' $\lambda = .79$, $F_{(15, 878)} = 5.17$, $p < .001$, 효 과크기 = .08). 즉, 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진로태도 성숙의 변량을 8% 정도 설명하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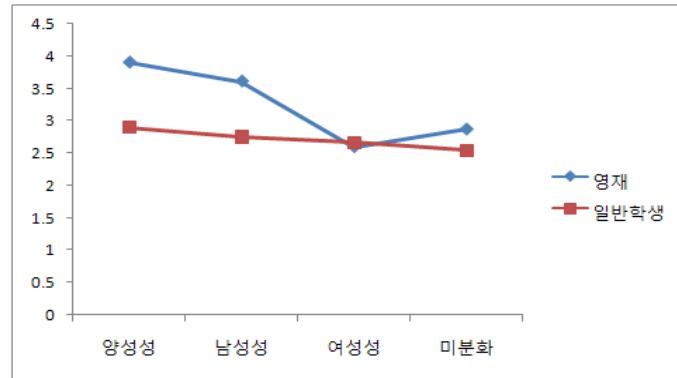
이상의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본 연구는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진로태도 성숙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표 III-3>).

〈표 III-3〉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효과

효과	종속변인	Univariate F	df	p
영재성	확신성	22.73 **	1/330	< .001
	준비성	6.35	1/330	.012
	목적성	32.64 **	1/330	< .001
	독립성	3.29	1/330	.071
	결정성	11.02 **	1/330	.001
성역할 정체감 유형	확신성	11.85 **	3/330	< .001
	준비성	5.45 **	3/330	.001
	목적성	.49	3/330	.687
	독립성	4.49 **	3/330	.004
	결정성	5.96 **	3/330	.001
영재성 * 성역할 정체감 유형	확신성	5.25 **	3/330	.002
	준비성	4.72 **	3/330	.003
	목적성	1.54	3/330	.204
	독립성	8.65 **	3/330	< .001
	결정성	.79	3/330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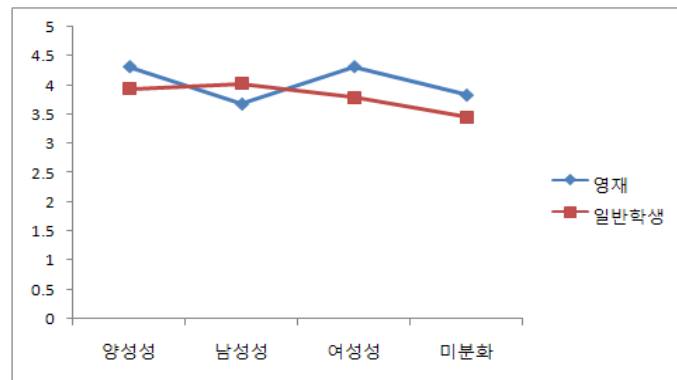
Note. * $p < .05$. ** $p < .01$.

먼저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at $p < .01$).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그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의 ‘확신성’(Univariate $F_{(3, 330)} = 5.25, p = .002$), ‘준비성’(Univariate $F_{(3, 330)} = 4.72, p = .003$)과 ‘독립성’(Univariate $F_{(3, 330)} = 8.65, p < .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III-3>). 즉 일반적으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상관없이, 영재($M = 3.55$)가 일반 학생($M = 2.63$)에 비해 진로에 대해 ‘확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 학생($M = 2.66$)과 영재($M = 2.60$)의 진로 확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반 학생이 진로에 대해 확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



[그림 III-1] 진로 '확신성'에 대한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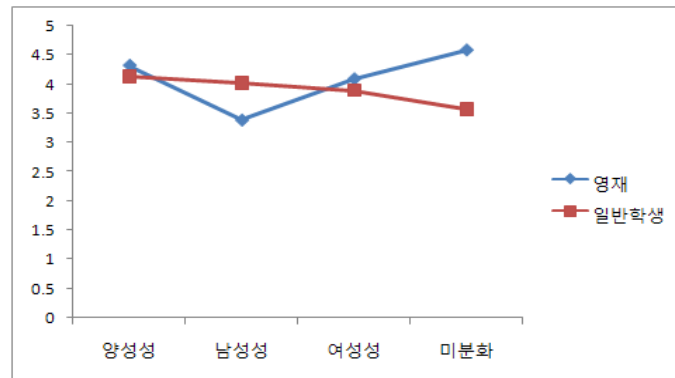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정도 등의 준비에 대해서는 남성성을 제외한 양성성, 여성성과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보이는 영재가 일반 학생보다 진로에 대해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다(<표 III-3>). 그러나 남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고 있는 일반 학생($M = 4.03$)이 남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영재($M = 3.68$)보다 진로에 대해 스스로 관심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



[그림 III-2] 진로 '준비성'에 대한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진로 결정면에서 영재와 일반 학생의 차이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경향성을 보였다(<표 III-3>). 양성성과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보이는 영재와 일반 학생은 독립적인 진로결정 성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일반 학생($M = 4.01$)은 오히려 같은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영

재($M = 3.39$)보다 독립적으로 진로를 결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미분화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경우, 영재($M = 4.58$)는 일반 학생($M = 3.57$)보다 주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I-3]).



[그림 III-3] 진로 '독립성'에 대한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한편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재성의 주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at $p < .01$). 다시 말해서, 영재가 일반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숙한 진로태도를 보여주었다(<표 III-2>, <표 III-3>). 영재($M = 3.55$, $M = 3.90$, $M = 3.88$)는 일반 학생($M = 2.63$, $M = 3.26$, $M = 3.08$)에 비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으며(Univariate $F_{(1, 330)} = 22.73$, $p < .001$), 진로 선택에 대한 욕구 및 현실에 대한 자각이 높고(Univariate $F_{(1, 330)} = 32.64$, $p < .001$), 선호하는 진로방향이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Univariate $F_{(1, 330)} = 11.02$, $p = .001$).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t $p < .01$).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목적성'을 제외하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III-3>). 이에 통계적으로 어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서 진로태도 성숙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기 위해 Tu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태도 성숙 하위 요인 중 '확신성'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Univariate $F_{(3, 330)} = 11.85$, $p < .001$).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가진 학생($M = 3.70$)의 경우 스스로 선택한 진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남성성의 역할 정체감 유형을 가진 학생($M = 3.24$)에게서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성($M = 2.63$)과 미분화($M = 2.58$)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학생 사이에서는 진로에 대한 ‘확신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2>).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태도 성숙 하위 요인 중 ‘준비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Univariate $F_{(3, 330)} = 5.45, p = .001$).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가진 학생($M = 4.23$)이 진로 결정에 관심과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성과 남성성($M = 3.83$)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 ‘준비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p = .002$), 양성성의 유형을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학생($M = 4.01$)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179$). 여성성과 남성성 유형에서는 진로 ‘준비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457$). 반면에, 남성성의 유형과 미분화($M = 3.49$)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미분화 성정체감 유형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2$).

진로태도 성숙 하위 요인 중 ‘독립성’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Univariate $F_{(3, 330)} = 4.49, p = .004$). 이에 통계적으로 어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서 진로 ‘독립성’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가진 학생($M = 4.28$)이 진로 결정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학생($M = 3.98$)이 진로 ‘독립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양성성과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진로 ‘독립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 = .088$), 남성성($M = 3.66$)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비교할 적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한편 평균을 보면, 여성성의 유형이 남성성 유형과 미분화 유형($M = 3.68$)보다 진로 ‘독립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at $p = .05$).

진로태도 성숙 하위 요인 중 ‘결정성’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Univariate $F_{(3, 330)} = 5.96, p = .001$).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가진 학생($M = 4.05$)이 진로 방향에 대한 확고함 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여성성 유형의 학생($M = 3.40$)이 진로에 대한 ‘결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성 유형을 미분화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학생($M = 2.97$)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34$). 그러나 여성성 유형을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학생($M = 3.33$)과 비교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977$). 마찬가지로 남성성과 미분화 유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로 ‘결정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12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등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 재원 중인 영재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 및 진로태도 성숙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재가 일반 학생에 비해 남성성 요인과 여성성 요인에서 모두 높아,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형성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는 일반 학생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서로 양립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여 융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Kerr & Maresh, 1994; Klein & Zehms, 1996).

이에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독립 차원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간주하기 위해,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하고, 영재성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고, 그 외 성역할 정체감 유형 분포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영재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학생 영재는 양성성 유형 다음으로 남성성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 학생에게서 미분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 연구(오윤자, 2003; 조아미, 2002)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아직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등 학생들이 점차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될 때, 전통적인 성고정 관념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이상의 결과를 남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는 시기에,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김영희, 1990)와 함께 고려한다면, 전통적인 성역할 규준을 초월하여 바람직한 성역할을 발달시키는 지도방안 뿐 아니라 그 지도 시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다.

영재의 경우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영재가 남성 및 여성 모두의 특성과 흥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Dellas, 1969; Kerr & Maresh, 1994; Klein & Zehms, 1996; Wolleat, 1979). 즉 영재는 여성 같은 감수성 및 민감성을 보이면서 남성성과 관련이 있는 독립성과 주도성을 함께 보인다는 것이다. 영재는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지각하며, 성역할 정체감 갈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성역할 개념을 통해서, 영재는 자신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격특징, 역할특징 및 직업 특성을 좀 더 융통적으로 확장하고 분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Deaux & Lewis, 1984; Doescher & Sugawara, 1990).

또한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차이를 영재와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에 대해 영재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 학생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각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확신성, 준비성, 목적성, 독립성과 결정성)에서의 차이는 그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 양성성과 남성성에서 진로태도 성숙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여성성과 미분화에서는 비교적 진로태도 성숙 정도가 낮았다([그림 III-1], [그림 III-2], [그림 III-3]). 그러나 이상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의 차이는 현저한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인 일반 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아직 미분화된 상태이므로, 성역할에 따라 자신의 역할 특징이나 직업 특징을 분화하고 확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일반 학생들은 진로에서 어떤 성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개인적인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준비를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여,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정도로 성숙하고 합리적인 진로태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영재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영재는 같은 혹은 몇 살 나이가 더 많은 학생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지각 능력이 뛰어나고, 진로를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Berger, 1989; Kelly & Cobb, 1991, Silverman, 2000), 조기 영재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재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태도 성숙 정도 및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영재는 다른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영재보다 진로태도 성숙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Bem, 1975; Farmer, 1985; Kerr & Maresh, 1994; Klein & Zehms, 1996; Torrance, 1980; Yanico et al., 1978)에서 보고한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양성성 성정체감 유형의 학생들이 좀 더 진로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성의 경향을 보일수록, 성역할 정체감 갈등수준과 진로에 대한 성고정관념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영재는 기타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갖는 영재에 비해, 진로에 대한 확신성은 높았으나, 진로에 대한 준비성 및 진로에 대한 독립성 요인에서는 낮았다. 반면에,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영재는 진로 확신성을 제외하고, 진로 준비성 및 진로 독립성에서 비교적 진로태도 성숙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영재성 분야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영재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는지 반성하고 자신의 선택한 진로 방향이 자신의 영재성과 부합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영재는 수학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남, 녀의 성비가 점차 불균등하다는 현상을 접하게 되고, 수학이라는 특정 과목이 남성

위주의 과목이라는 고정관념에 점차 노출되면서, 자신의 진로방향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고함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 남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영재보다는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영재가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영향을 받아, 자신이 선택한 진로방향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진로태도와 관련해서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이 영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영재는 진로에 필요한 준비, 관심 및 참여 정도가 오히려 높고, 세심하고 민감하게 진로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학생에 비해 영재는 진로에 관심이 일찍 나타나므로, 포괄적인 진로발달 프로그램을 조기에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영재뿐 아니라 일반 학생 중에서도 여학생은 일찍부터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닌, 자신의 적성, 흥미, 동기 및 가치관을 고려하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성역할 정체감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진로 지향적이며, 진로에 대한 성고정 관념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성역할 발달에 있어, 청소년기의 목표를 전통적인 성역할 규준을 초월한 양성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학생 영재로 하여금 ‘영재’와 ‘여성’이라는 이중 정체감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면, 여학생 영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중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재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성성 및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 지향성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이 많았다(Bem, 1975; Farmer, 1985; Gianakos & Subich, 1988; Hackett, 1985; Harren, 1979; Wolfe & Betz, 1981; Yanico et al., 197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영재들이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영재만큼 진로 준비성, 진로 목적성에서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 바, 여성성 관련 감수성 및 민감성 등이 전통적인 남성 위주로 생각하였던 특정 과목 혹은 진로에서도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앞서 언급한 여학생 혹은 여학생 영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중재 방안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여성 전문가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정경아 외, 2006; Silvrman, 2000). 물론 여학생 및 여학생 영재에게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전문가의 역할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고정형화된 이미지를 없애고, 친근감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전문가의 비율이 낮아, 여성 역할 모델을 찾기 힘들어, 오히려 여성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역효과를 유발하지 모른다. 그러므로 여학생 및 여학생 영재에게 생물학적 성에 초점을 맞추어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시도 외에도, 양성성의 정체감 혹은 여성성의 정체감의 긍정적인 면모를 제공하는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성역할 정체감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그 외 변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가족체계 및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이 성역할 정체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만을 고려한 중앙치 반분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표집 대상에 따라 그 중앙치가 달라지며, 중앙치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대상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보완하여 영재성 분야는 물론 다양한 연령 집단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희(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재호(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완성(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 103-123.
- 박은옥·박영숙(2000).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건강행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 362-378.
- 송은경(1994).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유형간의 관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운자(2003).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소재,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7, 315-330.
- 유계식·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 259-288.
- 유성경·이향심·황매향·홍세희(2007).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 357-380.
- 유정이·황매향·김지현(2002). 초등학생 직업 포부 및 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5, 1-39.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희경·이기학(2006).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및 진로효능감이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 53-67.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경아·최윤정·윤초희·이미순(2006). 영재교육 성별 실태 및 영재 여학생 육성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정자영(2009). 수학 영재와 일반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조아미(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1-108.
- 지용근(2004).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71-88.
- 최임순(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213-232.
- 황매향·김지현·유정이(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 3-12.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erger, S. L. (1989). *College planning for gifted students*. 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Buescher, T. (1985).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and talented adolescents. *Roeper Review, 8*, 10-15.
- Buescher, T. (1991). Gifted adolescents. In N. Colangelo & G.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 382-401).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urnett, J. W., Anderson, W. P., & Heppner, P. P. (1995). Gender roles and self-esteem: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23-326.
- Callahan, C. M., & Reis, S. M. (1996). Gifted girls, remarkable women. In K. D. Arnold, K. D. Noble & R. F. Subotnik(Eds.), *Remarkable women: Perspectives on female talent development*(pp. 171 - 192). Cresskill, NJ: Hampton Press.
- Colangelo, N., & Zaffrann, R. (1979). *New voices in counseling the gifted*. Dubuque, IA: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 Crombie, G., Bouffard-Bouchard, T., & Schneider, B. H. (1992). Gifted programs: Gender differences in referral and enrollment. *Gifted Child Quarterly, 36*, 213-214.
- Deaux, K., & Lewis, L. (1984). The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elisle, J. (1982). *The gifted underachiever*. *Roeper Review, 4*, 16-18.
- Delisle, J., & Squires, S. (1989). Career development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Position statement. Division on Career Development(DCD) and The Association for the Gifted(TAG). *Journal of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97-104.
- Dellas, M. (1969). Counselor role and function in counseling the creative student. *The School Counselor, 17*, 34-39.
- Doescher, S. M., & Sugawara, A. I. (1990). Sex role flexi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22*, 111-123.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an and m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63-390.
- Gianakos, I., & Subich, L. (1988). Student sex and sex role in relation to college major cho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259-268.

- Hackett, G. (1985). The role of mathematics self-efficacy in the choice of math-related majors of college women and men: A path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47-56.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6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Hollinger, C., & Fleming, E. (1992).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life choices of gifted and talented young women. *Gifted Child Quarterly*, 36, 207-212.
- Kaplan, A. G., & Sedney, M. (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Karniol, R., Gabay, R., Ochion, Y., & Harari, Y. (1998). Is gender-role orientation a better predictor of empathy in adolescence? *Sex Roles*, 39, 45-59.
- Kelly, K. R., & Cobb, S. J. (1991). A profile of the caree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young gifted adolescents: Examining gender and multicultural differences. *Roeper Review*, 13, 202-206.
- Kerr, B. A. (1981). *Career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Columbus, OH: ERIC Clearinghouse on Adult Vocational and Career Information(ERIC Information Series No. 230).
- Kerr, B. A. (1986). Career counseling for the gifted: Assessments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602-603.
- Kerr, B. A. (1990). Leta Stetter Hollingworth's legacy to counseling and guidance. *Roeper Review*, 12, 178-181.
- Kerr, B. A. (1991). *A handbook for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err, B. A. (1997) *Smart girls: A new psychology of girls, women, and giftedness*. Phoenix, AZ: Gifted Psychology.
- Kerr, B. A., & Ghrist-Priebe, S. L. (1988). Intervention for multipotentiality: Effects of a career counseling laboratory for gift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366-370.
- Kerr, B. A., & Maresh, S. (1994). Career counseling for gifted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pp. 197-235). Hillsdale, NJ: Earlbaum.
- Kirchmeyer, C., & Bullin, C. (1997). Gender roles in a traditionally female occupation: A study of emergency, operating, intensive care, and psychiatric nurs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78-95.

- Klein, A. G., & Zehms, D. (1996). Self-concept and gifted girls: A cross sectional study of intellectually gifted females in grades 3, 5, 8. *Roeper Review*, 19, 30-34.
- Kline, B. E., & Short, M. (1991). Change in emotional resilience: Gifted adolescent females. *Roeper Review*, 13, 118-120.
- Lundeberg, M. A., Fox, P. W., Brown, A. C., & Elbedour, S. (2000). Cultural influences on confidence: Country and gende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152-159.
- Manaster, G. J., & Powell, P. M. (1983).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gifted adolesc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Roeper Review*, 6, 70-73.
- Matsui, T. (1994). Mechanisms underlying sex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expect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177-184.
- Reis, S. M. (1991). The need for clarification in research designed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achievement and accomplishment. *Roeper Review*, 13, 193-198.
- Reis, S. M., & Callahan, C. M. (1989). Gifted females: They've come a long way-or have they?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2, 99-117.
- Silverman, L. (1995). Why are there so few eminent women? *Roeper Review*, 18, 5-13.
- Silverman, L. (2000).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Denver, CO: Lover Publishing.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9). On assessing "androgyny." *Sex Roles*, 5, 721-738.
- Terwilliger, J. S., & Titus, J. C. (1995).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s among mathematically talented youth. *Gifted Child Quarterly*, 39, 29-35.
- Torrance, E. P. (1980). Understanding creativity in talented students. In J. C. Gowan, G. D. Demos & C. J. Kokaska(Eds.), *The guidance of exceptional children: A book of readings*(2nd ed., pp. 70-77). NY: Longman.
- Wolfe, L. K., & Betz, N. E. (1981). Traditionality of choic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43-55.
- Wolfe, P. L. (1979). Build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gifted females. In N. Colangelo & R. T. Zaffrann(Eds.), *New voices in counseling the gifted*(pp. 331-345). Dubuque, IA: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 Yanico, B. J., Hardin, S. I., & McLaughlin, K. B. (1978). Androgyny and traditional versus nontraditional major choice among college fresh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261-269.

• 논문접수 : 2010년 12월 21일/ 수정본 접수 : 2011년 3월 7일/ 게재승인 : 2011년 3월 11일

ABSTRACT

The Effects of Gender Role Identity of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on the Mature Degree of Career Attitudes

Lee, Mi-Soon (Assistant Prof. Daegu University)

Jung, Ja Young(Teacher, Kunmyung Middle School)

The present study conducted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Jung, 1990) and the *Maturity Scale of Career Attitudes*(Kim, 2006) on mathematically gifted and non-gifted middle students to explore the effects of gender role identity on the mature degree of career attitudes. Results indicated that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showed the higher masculinity and femininity scores of gender role identity than non-gifted students. On classifying gender role identity into 4 types(androgyny, masculinity,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non-gifted students showed more undifferentiated type than other types but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showed more androgyny type than other types. In term of the differences in the mature degree of career attitudes by giftedness and gender role identity typ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ture degree(and pattern) of career attitudes by gender role identity types of non-gifted student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ture degree(and pattern) of career attitudes by gender role identity types of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That is,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showing androgyny and femininity gender role identity had higher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s. For these significant results,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le reasons, which based on stu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sponses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or directions) in planning for career counseling and curriculum development.

Key Words : gifted students, gender role identity,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the avoidance for science and engineering